

국방부 2004년도 예산안 편성

전력투자비 늘려 GDP 3.2% 수준으로 편성

국방 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2003년 대비 28.3% 증가된 22조 3,49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전력투자비는 42.1% 증액된 8조 1,465억원으로 경상운영비는 21.5% 증액된 14조 2,030억원으로 편성했다.

'04년 국방예산은 현존 및 미래위협 대비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하여 국방비중 전력투자비 점유비율이 32.9%에서 36.5%로 상향 조정되었다.

경상운영비도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필수 증액소요를 반영함으로써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금년도 2.7%에서 내년도에는 3.2%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 편성중점 및 주요사업

전력투자비는 현존 및 미래 위협 대비 핵심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 구현을 위한 소요는 필수 전력 위주로 선별적으로 확보하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전력투자비 주요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력투자비 중 계속사업에 202개사업 7조 8,609억원(96.5%)을 반영하였으며, '04년 신규착수사업에 30개사업 2,856억원(3.5%)을 반영하였다.

* 계속 추진중인 사업

기동·타격전력은 K1A1 전차, K-9 155밀리자주포, 대공경 다련장, 11기보사단 개편 등 16개사업 9,548억원을 반영하였다.

해상·상륙전력은 KDX-II/III, 대형 수송함, 214급 잠수

「21세기 한국적 첨단 기술정보군 육성 전략」

국방大,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공동 국방과학 학술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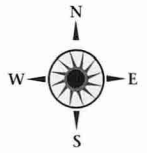


국방 대학교(총장 黃圭軾)는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회장 차宣燮)와 공동으로 지난 6월 5일 전쟁기념관에서 『21세기 한국적 첨단 기술정보군 육성 전략』을 주제로 국방과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이라크 전쟁양상을 토대로 고도의 과학적 부대운

용과 정보·기술 중심의 첨단과학군 건설의 필요성 부각과 북한의 핵문제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와 세계안보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전력획득 패러다임 구현방안이 논의된 이 날 학술회의는 200여명의 학계 주요인사, 과학기술부, 국회국방위 및 군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남길현 국방大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는 김철환 국방大 교수의 「기술축적 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 구현 방안」, 신양호 (주)BGEN 회장의 「미래 군 구조혁신을 위한 테크노 경영전략」, 황철준 국방부 정보화정책관의 「국방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의 3개 주제 발표 후, 홍윤기 한성大 교수, 민형기, 이재형 국방大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벌였다.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

구분	'03예산	점유율	'04요구	점유율	증감	%
합계	17조 4,264	100.0	22조 3,495	100.0	4조 9,231	28.3
전력투자비	5조 7,328	32.9	8조 1,465	36.5	2조 4,137	42.1
경상운영비	11조 6,936	67.1	14조 2,030	63.5	2조 5,094	21.5

*GDP 대비 점유율 : 2.7 → 3.2%

함, 해상초계기 2차 등 23개사업 1조 4,000억원을 반영하였다.

공중·방공전력은 F-15K 전투기, KF-16 추가생산, T-50 양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 18개사업 1조 7,376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C4·전자전전력은 전술통신체계, 다중채널 VHF 장비, 무인정찰기, 신호정보 수집체계 등 28개사업 3,996억원을 반영하였다.

지원전력은 편제장비 보강, 장비유지, 방위비 부담금, 불공 2차사업 등 77개사업 2조 4,299억원을 반영하였다.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40개사업 9,390억원을 반영하였다.

*'04년도에 새롭게 착수하는 신규사업

기동·타격전력은 3기갑여단 개편, 육·해군 테이프형 폭약 등 5개사업 133억원을 반영하였다.

해상·상륙전력은 차기호위함, KNTDS 2차양산 2개사업 68억원을 반영하였다.

공중·방공전력은 차기 유도무기, 공중 급유기, GPS 유도폭탄 등 6개사업 1,484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C4·전자전전력은 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 C4 체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등 4개사업 325억원을 반영하였다.

연구개발은 한국형전투기, 정찰위성, MCRC노후교체, 전자전 훈련장비 등 12개사업 426억원을 반영하였다.

방산학회, 제20회 방위산업 정책포럼 개최

「공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를 주제로...

한국 방위산업학회는 방산 현안 문제를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 연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위산업 정책 포럼을 지난 6월 17일 조선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20회를 맞은 이번 정책 포럼에서 김성일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의 군사력 건설방향과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의 주제발표를 통해 3차 중동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의 항공역할의 변천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향후 우리 공군도 전장감시체계,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를 중심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항공우주군을 건설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육군포병학교, 화력연구세미나 개최

화력연구소와 함께 다차원 화력전장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 포병학교(학교장: 金基浩)는 이라크 전쟁이 보여준 화력 운용을 거울삼아 다차원 화력전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03 화력 연구 세미나를 화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19일 풍익훈련장에서 개최하였다.